

친절과 상냥함으로 ✨

친절은 삶을 사랑하는 아름다움 속에서 빛나는 햇빛과 같습니다.

친절과 상냥함은 언제나 자신의 주변을 밝게 해주고 주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작은 친절도 헛된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착하고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아가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친절함이 생활 속에 배어 있고 늘 남을 상냥하게 대하는 이들은 손해를 보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친절하고 상냥함은 마음의 천국은 물론 이 세상 속에서도 작은 천국을 체험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이 아닐까요?

다른 이에게 친절과 상냥함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다면 우리도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친절과 상냥한 마음은 의무가 아니라 진실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샘 속에서 흘러넘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아름다움을 창조해주는 친절과 상냥함의 주인공이 바로 나와 나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친절과 상냥함이 몸에 배이게 하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말입니다.

우리들의 기억 속에 남는 친구들의 이야기 속에는 그들의 친절과 상냥함이 함께할 때 기뻐집니다. 그리고 친구가 그리워지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 존 후스가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을 때 그의 친구 한 사람이 모인 무리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달려나와서 진정한 마음으로부터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목숨조차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존 후스는 고마움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우정의 진실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목숨까지 내건 친구가 진실로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한 저명인사가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에게 한 친구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저명인사의 주위에는 늘 친절하게 변함없이 도와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친구가 있기 때문에 행복의 정상에 이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절하고 진실한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들을 친절하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는 주님이 한 분이듯이 고귀한 친구도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의 살아감 속에서 친절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버린다면 남을 이해하고 폭넓게 감싸줄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친절하고 상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친절과 상냥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길을 안내해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의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늘 항상 생활 속에서 친절히 그들을 대할 수 있다면 그만큼씩 우리들의 행복의 범위도 넓어질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진실한 삶의 모습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친절과 상냥함은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학교 그리고 우리 민족을 밝게 해줄 것입니다.

친절과 상냥함은 우리들의 얼굴 모습도 우리들의 생활도 바꾸어줄 것입니다.

삶에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욕심쟁이들은 절대로 친절해질 수 없습니다.

에고이스트들도 상냥해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친절과 상냥함으로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곧 행복한 삶의 현장으로 초대할 것입니다.

용혜원/한돌교회 담임목사. 시인.

☘ 청소년과 함께하는 QT나라 , 「 새벽나라 」 제공

<http://isena.com/>